

고도에서 찾은 희망의 근거 가족과의 그리스 여행

메테오라. 깎아지른 절벽에 세워진 중세의 수도원이 아찔한 경관을 선사한다.

이해준 기자는 <헤럴드경제> 문화부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1년 10월 한국을 출발해 2012년 7월까지 가족과 함께 아시아에서 유럽~남미~북미로 '희망찾기 세계일주'를 펼쳤다. 현재는 <헤럴드경제> 정치부 선임기자로 일하고 있다.

풀이 죽은 사람들, 생기를 잃은 도시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 봄이 왔지만 봄 같지가 않다.

우리 가족이 터키에서 그리스로 넘어왔을 때가 꼭 그랬다. 2월 말 ~3월 초, 하늘은 쉽게 봄을 허락하지 않았다. 지중해 연안의 들판과 나무엔 새싹이 막 돋기 시작했고 따사로운 햇살이 내리쬐릴 때는 대지에 생동감이 넘쳤지만, 날씨가 궂을 땐 스산한 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어 봄을 느끼기 어려웠다. 우리가 그리스를 여행한 12일 가운데 절반은 구름이 끼어 봄 같지 않은 날이 많았다. 더구나 당시 그리스가 최악의 경제위기로 몸살을 앓고 있어 거리에서 활력을 찾기 어려웠다. 스산한 날씨가 펼쳐질 땐 을씨년스럽기까지 했다.

우리도 지쳐 있었다. 중국과 네팔, 인도 등 아시아에 이어 야간버스를 밥 먹듯이 타면서 터키를 일주한 후여서 거의 녹초가 되어 있었다. 세계를 주유하기 시작한 지 5개월을 넘기면서 여행의 매너리즘도 우리 주변을 맴돌았다. 새로운 여행지의 역사와 문화, 사회에 대한 호기심에 눈동자를 번득이는 것이 아니라, 타성에 젖어가고 있었다. 버스를 타고 이동하고, 숙소를 잡고, 관광지를 둘러보고, 식당을 찾아 식사하는 관성에 이끌려가는 듯했다. 알게 모르게 우리 내부에 외로움과 공허함, 향수병이 안개처럼 우리를 감싸고 있었다.

여행지가 그나마 활기를 띠고, 사람들로 북적이고, 역동적인 모습을 보였다면 우리도 여행의 피로를 털어내면서 새로운 여행지에 대한 호

기심으로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었을 텐데, 그리스는 그리스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풀이 죽어 있었다. 봄이 왔지만, 그리스와 우리에게엔 아직 봄이 오지 않았다.

터키 이스탄불에서 야간버스로 약 10시간 달려 그리스 제2의 도시인 테살로니키에 도착했을 때는 최악의 상태였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 우리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몸은 천근만근이었다. 성서 테살로니가전서의 무대이기도 한 테살로니키에는 고대 동로마 문화, 마케도니아 문화의 유적들이 곳곳에 있었고, 비잔틴문화의 보물들을 전시해놓은 박물관이 눈길을 끌기도 했지만, 흥분은 잠깐이었다. 여행의 활력과 상상력을 이어가지 못했다.

2012년 당시 그리스와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등 남유럽을 휩쓸던 경제위기의 충격은 생각보다 깊었다. 테살로니키는 거의 죽어가는 것처럼 보였다. 평일인데도 문을 닫은 상점들이 많았고, 곳곳에 ‘임대’ 또는 ‘매각’을 알리는 팻말이 붙어 있었다. 골목을 돌아갈 때마다 유리창이 깨진 채 방치된 상점들이 나타났고, 스프레이로 낙서를 휘갈겨놓은 건물들이 즐비했다. 사람들의 얼굴에도 근심이 묻어나는 듯했다. 풀이 죽어 있었고, 생기가 없었다.

어디서도 희망을 찾을 수 없었다. ‘왜 왔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 가족의 ‘희망 찾기’ 세계 일주 여행이 난관에 봉착했다.

그림 같은 메테오라를 거쳐 아테네로

하지만 그렇게 자기연민에만 빠져 있을 수만은 없었다. 경제위기라 하더라도 그리스인들의 삶이 지속되어야 하듯이, 우리의 여행도 계속되어야 했다. 처음 세계일주 여행을 시작했을 때처럼 도전과 모험심에 충

Greece



파르테논 신전. 아테네의 주신인 아테나를 모신 신전이자 그리스 신화의 종합판으로 지금도 복원공사가 한창이다.

만하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여행의 즐거움은 찾아야 하는 것 아닌가. 다시 신발 끈을 조이고 테살로니키를 떠나 두 번째 목적지인 메테오라로 향했다. 메테오라에서는 여행의 즐거움을 '반쪽' 맛볼 수 있었지만, 아테네로 오면서 다시 위기를 맞았다.

메테오라는 마치 땅에서 불쑥 솟아난 것 같은 거대한 바위와 그 바위 위에 아슬아슬하게 지은 수도원이 아찔한 풍광을 선사하는 곳이다. 감탄사가 절로 나왔다. 테살로니키에서 잔뜩 심술을 부리던 날씨가 맑게 갠다. 파란 하늘에 뭉게구름이 두둥실 떠가고, 아래로는 넓은 분지가, 아찔한 절벽 위에는 수도원들이 우리의 가슴을 시원하게 만들었다. 속세의 때를 벗어버리고 순수한 신심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중세 수도사들의 염원을 들여다보는 것 같았다.

아테네는 인류 문명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사상과 문화의 뿌리가 깃든 곳이다. 기원전 1,200년경 도시국가로 등장해 기원전 492년 페르시아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전성기를 누린, 유럽 문명의 시원과 같은 곳으로 따로 설명이 필요 없는 곳이다. 우리도 도착하자마자 파르테논 신전이 있는 아크로폴리스를 비롯해 고대 아고라, 아폴론 신전, 제우스 신전 등 도시 곳곳에 보석처럼 박혀 있는 유적들을 신나게 돌아다녔다. 2,000여 년의 세월을 버텨낸 돌조각들에 나름의 역사적 상상력을 발휘하면서 신화의 세계에 빠져들기도 했다. 하나하나 의미를 따져보지면 몇 달 동안 머물며 여행해도 아쉽지 않을 고대유적의 보고였다.

하지만 아테네에도 경제위기의 그림자가 우리 주변을 맴돌았다. 햇살이 날 때는 사람들이 카페에도 나와 도시가 살아나는 듯했지만, 날이 흐리면 상황이 바뀌었다. 조금씩 심술을 부리던 날씨가 3일째 되던 날 비로 바뀌어 구질구질해지자 거리엔 사람들이 자취를 감추었다. 시간이 정지된 것 같았다. 우리 가족도 침체에 빠졌다. 나는 물론 아내나 두 아들 모두 침대에 널브러져 일어나지 못했다. 결국, 일정을 하루 늘리고, 숙소에서 쉬어야 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렇게 하루를 숙소에서 묵새긴 다음날 그리스 여행에서 의외의 '선물'을 받았다. 아테네의 중심광장인 신타그마 광장에서 '구조조정 반대'를

아테네 시가지에 있는 제우스 신전에서 바라본 아크로폴리스. 아크로폴리스는 높은 언덕에 있어 도시 어디서나 보인다.



주장하는 작은 시위도 구경하고, 아크로폴리스 박물관,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이 후학을 가르쳤던 곳에 세워진 아테네대학교와 아테네학술원을 거쳐 숙소로 돌아올 때였다. 다음 여행지인 델피와 크레타 섬 여행방향을 알아보기 위해 숙소 입구의 현지 여행사에 들렀다. 중년의 여행사 사장과 상담을 끝내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금융위기 이야기가 나왔다. 금융위기로 사업은 어렵지 않은지, 관광객들은 줄어들지 않았는지, 그동안 궁금했던 질문에 여행사 사장이 말했다.

“지금은 위기를 겪고 있지만, 그리스인들은 낙관적이에요. 언젠가 위기도 넘어갈 거예요.” 테오도로 콘솔라스 사장은 싱긋 웃으며 말했다. “그래요?” 내가 눈동자를 크게 뜨고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물었다. “허허허. 그리스가 위기를 겪은 것은 이것만이 아니에요. 수없이 많은 위기를 겪었어요. 이것보다 더 심한 위기기도 있었지요. 하지만 모두 지나가고 지금 이렇게 있잖아요. 이번 위기기도 지나갈 거예요. 허허허.”

그러면서 콘솔라스 사장은 2000년이 넘도록 아테네를 굶어보듯 버티고 있는 아크로폴리스를 가리켰다. 순간 나의 뇌리에 스파크가 일어났다. 바로 그리스의 깊은 역사에 이들이 가진 낙천성의 기원이 있는 것이었다. 모든 나라가 그렇지만, 그리스도 역사의 격랑을 거쳐 왔다. 유럽의 중심에서 식민지로 전락하기도 했다. 언제나 자신이 속한 시대, 자신의 처지가 가장 엄혹해 보이지만, 긴 시간에 비추면 딱 그렇지만은 않다. 지금의 경제위기도 한껏 부풀었다 사라질 거품일지 모른다. 아크로폴리스가 '이 또한 지나가리라' 외치는 듯했다.

위기를 극복하려면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 그렇다고 절망에 빠져 있을 필요는 없는 것이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미래에 대한 낙관을 바탕으로, 꾀꾀하게 오늘을 살아가는 지혜가 고통을 넘어서도록 하는 것 아닐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아닐까? 그리스 여행은, 찬란한 고대 유적도 유적이지만, 그보다 시간과 역사의 의미를 새롭게 알려준 여정이었다. 그게 가장 큰 선물이었다.

아테네를 떠나 신탁의 도시 델피에서 '신탁 주고받기' 놀이도 하고, 크레타 섬에서 지중해의 낭만과 니코스 카잔차키스가 추구했던 진정한 자유의 의미를 되새기고, 크레타문명에 흠뻑 빠지면서 다시 호기심에 눈동자를 번득이는 여행자 모드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도 콘솔라스 사장의 그 한마디, '이번 위기기도 지나갈 거예요'라는 그 한마디였다. 예기치 못한 곳에서 예기치 못한 사람에게서 들은 한마디가 우리에게 진짜 봄으로 가는 법을 알려주었다.